

“이렇게 살겠다” 삶의 목표 다지기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들은 생을 보람 있게 가꾸려는 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질문이다. 바로 이런 진지한 질문을 통해 우리들의 삶은 훨씬 우리다워질 수 있다. 왜냐하면 그런 질문을 통해 ‘나는 이렇게 살겠다’ 하는 확고한 삶의 목표와 방향은 세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삶의 끝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실천공행해 가는 삶은 얼마나 마음적스럽고 그 자체로 아름다운 삶일까.

진리를 향해 사는 일

원(願)이란 다름 아닌 삶의 궁극적인 방향과 목표이다. 따라서 원을 세우는 일은 삶의 궁극적인 방향과 목표의 건립이다. 즉 ‘세상이 무너져도 이것만은’ 하는 삶의 기둥을 건립하는 일이 원을 세우는 일이다. 불교, 특히 대승불교에서 원을 세우는 일은 아주 강조되고 있다. 그것은 불교의 신행이아

현대만평



丙子年! 어두운곳에 행운이...

願

왜 세워야 하는가



강 경 구 (전북대 철학과 교수)

말로 진리를 향해 사는 일이며 가장 인간답게 사는 일이기 때문에 뚜렷한 목표와 방향의 정립이 요청되기 때문이다. 불교는 가장 인간답게 살려는 사람을 보살이라고 한다. 보살은 ‘각성된 사람’을 가리킨다. 즉, 일상적 삶에 대한 반성을 통하여 ‘이렇게 해서 되

겠다.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확고한 삶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힘없는 정진을 해가는 사람이다. 아무튼 원은 ‘나는 이렇게 살 겠습니다’라는 존재의 원천으로부터 우리나라는 간절한 발심(發心)이요 그런 발심이 된 ‘각성된’ 사람을 불교는 보살이

의 원을 총괄하는 사홍서원(四弘誓願)과 보현보살의 열가지 원, 법장비구의 마흔여덟가지 원이 이를 잘 가리킨다. 보살이 세우는 삶의 목표를 ‘나’라는 존재의 원천으로부터 우리나라는 간절한 발심(發心)이요 그런 발심이 된 ‘각성된’ 사람을 불교는 보살이

한번 공헌해야겠다’ 한다면 그는 평생을 걸고 진력해 갈 것이다. 앞의 사람이 허무살이식 공부라면 뒤의 사람은 생을 건 공부이다. 그는 그만큼 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원이 확립된 삶은 창조적인 삶이다. 원은 내에 대한 반성을 통해 내 존재의 가장 깊은 바탕으로부터 우리나라는 간절한 생각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한다. 따라서 생의 순간순간, 하는 일 모두가 그 원을 향한 정진일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그런 삶은 가장 창조적인 삶이다. 원이 꼭 성취되는 것도 그 창조성의 결과이다.

셋째, 원의 확립은 우리를 삶을 순화시키고 청정하게 한다.

자리이타 원동력... “창조적 일상위해 필요” 불퇴전의 실천행이 ‘보살의 길’로 이끌어

라고 한다. 따라서 원의 확립이 아달로 보살의 기준이며 신행의 원동력이라고 추진력이다.

청정하게 순화된 삶

궁극한 삶의 목표가 원으로 확립된 삶은 어떠한가? 첫째로 그런 삶은 새롭고 큰 삶이다. 지금까지의 일상성으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새롭고, 큰 목표를 향하기 때문에 큰 삶이다. 예컨대 똑같은 환경에서 공부를 해가는 사람들도 어떤 자세, 어떤 목표를 가지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과 크기는 달라진다. 한 사람은 별다른 생각없이 공부에 임할 때 그는 그저 하루하루 눈 앞에 닥친 공부를 해갈 뿐이다. 그러나

바른 삶의 목표를 향해 정진하는 삶이 오직같은 생각이나 일에 그달릴 수 있겠는가. 그래서 ‘중생은 욕심으로 살고(欲生) 보살은 원으로 산다(願生)’고 하였다.

끝으로 원으로 사는 삶은 불퇴전의 용기와 힘이 살아 움직인다. 목표와 방향이 확고하기 때문에 풀려지지 않고 오직 한 생각(一念)으로 오롯하기 때문에 힘이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런 불퇴전의 용기와 힘은 원을 이루는 원동력이라고 해탈의 언덕에 이르는 추진력이다.

삶의 궁극한 목표와 방향을 세우는 일, 그것은 불자들뿐만 아니라 삶을 보람되게 가꾸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일이다.

신행 이끄는 불·보살의 원

불교를 믿는 공구적인 목표를 부처님과 같이 깨달음을 얻는 것이다. 자신의 깨달음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미혹의 중생들까지도 깨달음을 이끄는 것을 포함한다. 이렇게 깨달음을 구하려는 간절한 마음을 서원(誓願)이라고 한다. 서원은 종교인으로서의 약속이며 의지의 표명이다. 그래서 서원에는 불교정신의 적극성과 능동성 그리고 실천성이 극명하게 담겨있다. 대승불교에는 많은 서원이 전해지는데 모든 보살들에게 공통되는 서원이 사홍서원(四弘誓願)이다. 총괄적인 서원이라는 뜻에서 총원(總願)이라고 한다.

또한 관음보살, 지장보살 등 여러 보살들이 나름의 서원을 밝히고 있다. 사홍서원이 총원이라면 별원(別願)이라고

- 사홍서원 모든 보살 공통되는 4가지 총원
- 보현10대서원 부처님 공덕 이루는 10가지 행원
- 약사여래12원 일체 중생의 질병치료 무병 기원

한다. 널리 알려진 별원에는 △보현보살의 10대서원 △약사여래의 12원 △아미타여래의 48원이 있다.

사홍서원 공구적인 불교의식에 서 반드시 사용되고 있다.

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보현보살 10대서원 실행과 의지의 보현보살은

광국이라 하고 그 교주가 된 약사여래는 12가지의 큰 원을 세워 일체 중생의 질병을 치료하며, 다시 무병의 고집적인 병까지도 치료하겠다고 서원한다. (아미타여래 48원) (무량수경)에는 아미타불의 본생인 법장비구가 최상의 깨달음을 얻고자 중생구제를 원한다. 오랜 수행을 거듭한 끝에 마침내 아미타불이 되어 서방의 극락세계에 머무르고 있다. 48원중 제18원이 특히 유명하다. 그 내용은 아미타불 자신을 믿는 사람을 극락 세계로 이끌겠다고 깨달음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을 때에는 그들이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열반에 들지 않겠다고 했다.

(화엄경)에서 중대한 역할을 맡고있다. 부처님의 공덕을 이루어면 열가지 큰 행원을 닦으라고 강조한다. 동방세계에 불국토를 건설해 우리

새해의 밝은 아침을 맞아 지난 해를 반추하면서 새 설계를 그려 보는 기쁨이 찾아 본다.

지난해 우리는 해방과 분단의 50돌을 맞았다. 해방의 기쁨에 흥뻐 취하기도 전에 분단의 아픔을 저절로 겪어야 했던 우리들이었다. 이러한 아픔을 영구히 치유할 통일을 위하여 지난 해는 통일원년으로 거듭나야 했지만 여전히 남북관계는 방화시대라 머물러 있다. 성수대교 참사에 이어 삼풍백화점의 참사는 우리를 가슴속에 만연된 거품 지만함을 완전히 깎아내렸다.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는 학원 폭력과 같은 붉은 신호가 급박함을 알리고 있다. 고 속도로에만 눈이 멀어 성장제일주의로 밀려왔던 우리들에게 급격한 재동이 걸렸던 한 해였다.

과거청산 필연적 진통

그러나 다른 한편에는 푸른 신호도 들어와 있다. 문민정부에 역사적 과제로 부과되었던 군사반란과 내란이라는 치욕과 비극의 과거사를 청산하는 작업은 특별법제정을 통하여 마무리 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노태우 부 정축제가 법의 심판대에 올라 범치주의 실현을 위한 발돋움 하고 있다. 정경유착, 뇌물중여, 노동자탄압 일반도 동 봉건시대 경영으로 비대한 재벌들이 사회의 통제를 받기 시작했다. 어용노조가 아닌 민주노조도 사상 처음으로 출범했다. 또한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지방화시대를 맞았다.

숨가쁘게 돌아간 역동적인 한 해였다. 새로운 출발을 위해 과거의 찌꺼기를 씻어내고 자동차 시동을 이제 막 걸은 한 해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아득히 펼쳐질 고속도로에 진입하기에는 겨우야 할 자갈길이 너무나 긴 과 도기이다.

병자년 새해의 과업은 바로 이 자갈 길을 파헤쳐 저 멀리 뻗어간 고속도로에 우리 사회를 올려놓는 기초 작업을 쌓는 일일 것이다. 이 일, 곧 과도기적 과업에 대해 몇가지 다짐을 할 필요가 있다.

첫째,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켜진 붉은 신호를 푸른 신호로 바꾸는 일, 곧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것을 창설하는 데는 필연적으로 진통이 따른다. 일시적인 소동도, 불안함도, 경기후퇴도, 고통도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불부터 소폭세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의 소폭세의 괴움이고 육 동자를 분단하기 위한 산도의 마지막 산고이다.

우리는 정경유착의 청산, 부정부패 추방, 건설비리 근절, 5공청산 등과 같은 국화꽃과 육동자를 위하여 일시적인 고통과 아픔을 무 정부성으로 부정할 것이 아니라 새 것을 위한 진통기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보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하는 용기와 유연성이 과도기에 처한 우리 사회에 긴요하다.

새아침 칼럼



강 경 구 (동국대 사회학과 교수)

둘째, 5·18 역사청산은 이제 막 시작이다. 특별법제정으로 마무리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8·15 해방이후 친일파·민족반역자에 대한 청산작업이 반민법의 와 해로 무산된 이후 우리 현대사는 역사청산을 통한 민족정기 수립이 지속적으로 좌절되었다. 이번 5·18 역사청산은 민족사에 민족정기 수립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완벽한 역사청산은 진 상규명, 책임자 및 관련자 처벌, 피해자 명예회 복과 배상, 국보위 등에서 제정된 위 헌적 법률 및 제도 폐기, 5·18 민주·민중항쟁 정신계승 등이다. 마지막 단계까지 우리 모두는 역사청산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군부독재세력의 변희부, 당리당략적 타협 등으로 ‘역사 바로세우기’는 실패되고 말 것이다.

셋째, 당면 민족사적 핵심과제는 외세에 의해 분단된 우리 조국을 우리 손으로 통일하는 통일기반 조성이다. 이 통일기반이란 큰 일을 위해서 작은 일들일랑 작게 처리하는 예지를 가져야 한다. 조그마한 살문지 때문에 남북관계를 서로 얼어붙게 하는 행위는 결코 통일이 큰 사업작업이 아니고 전략적 사고도 아니다. 반대때문에 초가삼간을 불태워 버리는 여러식음을 정부나 국민들 모두 저질러서는 안된다. 통일기반 조성이라는 큰 일을 지키면서 반대를 잡는 방식으로 통일문제나 남북한문제를 풀어야 한다.

통일 한반도 비전 제시 넷째, 민주주의는 언제나 여러 세력 간의 힘의 균형하에서 성취된다. 1공화국하에서는 이승만 개인을 중심으로 한 자유당세력이 아담에 비해 너무 비대했고,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등의 군부독재하에서는 군부가 무소불위였기 때문에 민주화가 사정되었다. 민주주의가 정착화되기 위해서는 여당과 야당, 자본가와 노동자, 중앙과 지방, 국가와 시민사회, 대통령과 대법원장, 행정부와 국회, 학교당국과 학생들 사이에 힘의 균형이 취해져야 한다.

통일 한반도 비전 제시

다섯째, 세계화는 미국이나 일본이 하는 것을 따라하는 것, 즉 모방이 아니다. 우리의 독특한 것을 독창적으로 개발하여 그들의 것과 함께 겨루면서 서로 결합시키는 것이다. 서양의 오페라와 우리의 관소리가 다같이 서 울에 있는 예술의 전당에 오르면서 미국 뉴욕에 있는 예술의 전당에 오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흉내내고 따라하는 것은 식민주의 이치 결코 세계화는 아니다. 진정한 세계화를 위해서 우리를 우리답게 하는 ‘우리화’부터 먼저 전개해야 한다.

이러한 다짐으로 새해를 일구면서 병자년 을 알찬 과도기로 역사에 장식할 것을 기약 하고 손에 손잡고 힘차게 역사전진에 앞장설 것을 제안한다.

우리다운 역사 만들자

불기 2540 1996 丙子年

새해, 새날 - 닿는 곳마다 부처님 땅 도리에 하소서

大韓佛敎 曹溪宗

宗正 尹月下

- 元老會議 議長 金 慧 菴
- 副議長 金 僧 讚
- 副議長 金 圓 潭
- 事務處長 朴 愷 法
- 總務院 院長 宋 月 珠
- 總務部長 申 法 陀
- 總務局長 姜 性 慧
- 企劃室長 許 玄 應
- 企劃局長 韓 正 彬
- 監查局長 金 法 眞

- 財務部長 朴 元 愚
- 財務局長 李 宗 三
- 文化社會部長 金 時 玄
- 文化局長 車 德 信
- 社會局長 申 圓 昭
- 事業部長 李 雪 松
- 事業局長 柳 石 泉
- 護法部長 鄭 慧 昌
- 護法局長 朴 正 念
- 調查局長 曹 弘 冠
- 常任監察 金 圓 空
- 護法課長 金 曉 林
- 調查課長 朴 雲 光

- 司書室長 朴 平 常
- 司書次長 鄭 智 玄
- 首席司書 具 玄 中
- 中央宗會 議長 田 雪 靖
- 副議長 黃 日 面
- 副議長 李 青 和
- 事務處長 成 和 梵
- 護戒院 院長 吳 杲 山
- 初審護戒委員長 金 月 樓

- 教育院 院長 金 圓 山
- 教育部長 鄭 香 寂
- 佛學研究所長 宋 德 雲
- 總務局長 徐 正 門
- 教育局長 白 慧 敏
- 布敎院 院長 李 性 陀
- 布敎部長 金 圓 慧
- 布敎局長 金 聖 壽
- 鍊修局長 沈 和 庵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45 / 전화 : 02-739-5590